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남재량**

I. 머리말

청년은 한 나라의 미래이므로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청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년 관련 문제들, 특히 청년실업을 비롯한 청년 노동시장 관련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청년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청년 가운데에도 특히 청년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가운데 많은 연구들은 청년 전체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취급하여 청년 전체에 대해 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가운데에도 취업이나 노동시장 정착, 인적자본 축적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식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청년 관련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다.

청년 취약계층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청년 니트(NEET)이다. 영국에서 1999년에 처음 사용된 이 용어는 2004년경 일본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통계도 산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니트에 대한 통계는 남재량(2006)에 의해 처음으로 생산되었다. 그는 노동시장 통계 생산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니트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니트 진입 및 탈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재량(2006)의 후속연구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니트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 본 연구는 Jaeryang Nam(2011)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rnam@kli.re.kr).

우리나라의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니트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추이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추이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Ⅲ장은 니트 가운데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비구직 니트를 몇 가지 노동력 집단들로 구분한 뒤 이들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Ⅳ장은 이러한 비구직 니트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도 않은 비구직 니트가 과연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의 추이는 어떠한지 알아본다. 제Ⅴ장은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Ⅱ. 니트의 현황과 추이

1. 청년 니트의 정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문자 그대로 니트는 교육, 훈련, 일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999년 영국에서 16~18세를 대상으로 니트를 처음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¹⁾ 일본은 이를 15~34세로 확대하여 ‘청년무업자’로 정의하고 관련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청년 니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대표성 있는 통계를 산출한 것은 2006년이다. 남재량(2006)은 청년 니트를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니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재량(2006)의 후속연구로서 그의 정의를 따라 청년 니트를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①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최근의 청년 니트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역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본 연구에서 실업자 분류 기준은 ‘지난 4주간’이 아니라 ‘지난 1주간’의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1)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2. 청년 니트의 현황 및 연도별 추이

앞의 정의에 입각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한 최근의 청년 니트 현황 및 추이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청년 니트는 2003년 1,148천 명에서 2005년 1,270천 명까지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어온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7년 1,233천 명으로 줄어들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 1,344천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15~34세 인구 가운데 청년 니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7.8%에서 2010년 9.9%로 증가하였다.

선행연구(남재량, 2006)가 강조하고 있듯이 청년 니트를 구직활동 여부로 구분하여 이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구직 니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는 대부분 실업자에 속하며 이들에 대한 분석은 청년실업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에서 보듯이 구직 니트는 2003년 397천 명에서 2010년 349천 명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 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실업과 마찬가지로 경기에 따라 등락하고 있다.

그러나 비구직 니트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표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는 2003년 751천 명에서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증가하여 2010년에 이르면 996천 명에 달하여, 7년만에 245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35천 명 증가한 것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비구직 니트의 급속한 증가가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알고 있다.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증가세가 1990년대에 필적할 정도로 급격하지는 않으나,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이르면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하는 996천 명의 청년이 일을 하거나

<표 1> 니트 현황: 연도별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34세 인구	14,759 (100.0)	14,504 (100.0)	14,162 (100.0)	13,937 (100.0)	13,787 (100.0)	13,696 (100.0)	13,618 (100.0)	13,545 (100.0)
니트	1,148 (7.8)	1,214 (8.4)	1,270 (9.0)	1,267 (9.1)	1,233 (8.9)	1,249 (9.1)	1,326 (9.7)	1,344 (9.9)
구직 니트	397 (2.7)	407 (2.8)	397 (2.8)	386 (2.8)	343 (2.5)	331 (2.4)	353 (2.6)	349 (2.6)
비구직 니트	751 (5.1)	806 (5.6)	873 (6.2)	881 (6.3)	891 (6.5)	918 (6.7)	973 (7.1)	996 (7.3)
니트 아님	13,611 (92.2)	13,290 (91.6)	12,893 (91.0)	12,671 (90.9)	12,553 (91.1)	12,447 (90.9)	12,293 (90.3)	12,200 (90.1)

일할 준비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비구직 니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15~3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5.1%에서 2010년 7.3%로 크게 높아졌다.²⁾

3. 청년 니트의 월별 현황 및 추이

아래의 <표 2>는 비구직 니트의 현황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11년 1월의 비구직 니트는 1,032천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1개월 전인 2010년 12월의 975천 명에 비해 57천 명 증가한 것이며, 전년동기인 2010년 1월에 비해 29천 명 증가한

<표 2> 비구직 니트의 월별 현황

(단위: 천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월	798 (47)	826 (20)	908 (35)	948 (67)	939 (49)	901 (-17)	990 (17)	1,003 (7)	1,032
2월	914 (163)	999 (193)	1,134 (261)	1,080 (200)	1,055 (165)	1,071 (153)	1,149 (176)	1,216 (221)	
3월	721 (-30)	778 (-28)	852 (-20)	859 (-22)	875 (-16)	943 (25)	978 (5)	1,022 (26)	
4월	694 (-57)	763 (-43)	814 (-58)	833 (-48)	836 (-55)	885 (-33)	897 (-76)	967 (-28)	
5월	699 (-52)	761 (-45)	811 (-62)	851 (-29)	851 (-40)	873 (-45)	898 (-75)	918 (-77)	
6월	721 (-30)	761 (-45)	826 (-46)	838 (-43)	845 (-46)	868 (-50)	880 (-92)	951 (-44)	
7월	764 (13)	810 (4)	845 (-27)	872 (-9)	906 (15)	888 (-30)	949 (-24)	958 (-38)	
8월	796 (44)	885 (78)	948 (76)	924 (43)	961 (70)	949 (31)	1,012 (39)	1,033 (37)	
9월	734 (-17)	781 (-25)	866 (-7)	830 (-50)	864 (-27)	898 (-20)	960 (-13)	978 (-17)	
10월	703 (-48)	748 (-59)	810 (-63)	838 (-43)	828 (-63)	852 (-66)	961 (-11)	953 (-42)	
11월	721 (-30)	765 (-41)	789 (-84)	837 (-44)	829 (-62)	887 (-31)	957 (-16)	937 (-59)	
12월	749 (-2)	798 (-9)	868 (-5)	872 (-9)	844 (-47)	926 (8)	980 (7)	975 (-20)	
연평균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주: ()안의 값은 연평균으로부터 편차임.

2) 15-29세에 대한 자료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것이다. 비구직 니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상징성이 매우 크다.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포함)에 다니는 것(통학)도 아니고, 집에서 육아나 가사를 하는 것도 아닌 데에다가 일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는 청년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수는 2월이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표에서 월별 자료들을 보면 2월의 비구직 니트수가 연중 가장 많다. 즉 표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연도의 평균 비구직 니트수에서의 편차인데, 이 값이 예외 없이 2월에 가장 크다. 2010년 2월의 비구직 니트는 1월에 비해 213천 명이나 더 많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11년 2월의 비구직 니트는 1월에 비해 크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Ⅲ. 니트의 노동력 집단별 특성

이제 비구직 니트를 인적특성에 따른 노동력 집단들로 구분해 이들의 특성을 알아보자. 성, 연령, 그리고 학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들이 보이는 특성은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1. 성 별

먼저 성으로 구분한 비구직 니트의 특성을 살펴보자. <표 3>은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03년 67.6%에 달하였던 남성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2010년에 이르면 62.4%로 하락한다. 달리 말하면 여성의 비중이 32.4%에서 37.6%로 높아졌다.

이러한 여성 비구직 니트의 비중 증가는 1995년부터 2004년 동안을 분석한 기존연구³⁾에서도 나타났던 사실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1995년의 여성 비구직 니트 비중은 26.9%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단기적인 등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2010년 37.6%에 이른 것이다. 15년 만에 여성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무려 10.7%포인트나 상승한 것은 매우 급격한 변화이다. 여성 비구직 니트의 수도 1995년 73천 명에서 2010년 374천 명으로 이 기간 동안 301천 명이나 증가하였다. 요컨대 비구직 니트는 강한 여성화 추세를 보인다.

3) 남재량(2006).

<표 3> 성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남 성	508	523	544	540	554	573	614	622
	(67.6)	(64.8)	(62.3)	(61.3)	(62.2)	(62.4)	(63.1)	(62.4)
여 성	244	284	329	341	337	345	359	374
	(32.4)	(35.2)	(37.7)	(38.7)	(37.8)	(37.6)	(36.9)	(37.6)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연령별

청년 비구직 니트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4>와 <표 5>에서 보듯이, 청년 인구의 연령 구성에 비해 고연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25~29세 비구직 니트의 비중 증가이다. 이 비중은 2003년 26.5%에서 2010년 35.3%로 8.8%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동일기간 동안 15~34세에서 25~29세 인구의 비중은 <표 5>에서 보듯이 26.1%에서 27.5%로 1.4%포인트 상승하는 데에 그쳤다. 30~34세 비구직 니트의 비중도 12.5%에서 15.0%로 상승하였다. 반면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20~24세의 비중은 2003년 44.7%에서 2010년 36.6%로 8.1%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15~34세 가운데 20~24세 인구 구성비가 동일기간 동안 22.7%에서 19.5%로 3.2%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이다. 15~19세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이 집단의 인구 구성비가 21.4%에서 24.6%로

<표 4> 연령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19세	123	109	122	104	103	110	115	130
	(16.3)	(13.5)	(13.9)	(11.8)	(11.6)	(11.9)	(11.9)	(13.0)
20-24세	335	359	383	361	325	318	339	365
	(44.7)	(44.5)	(43.9)	(41.0)	(36.5)	(34.6)	(34.9)	(36.6)
25-29세	199	226	243	291	320	337	360	352
	(26.5)	(28.1)	(27.9)	(33.1)	(36.0)	(36.7)	(37.0)	(35.3)
30-34세	94	112	125	125	142	154	158	150
	(12.5)	(13.9)	(14.3)	(14.2)	(15.9)	(16.7)	(16.2)	(15.0)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15-34세의 연령별 인구 구성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19세	3,165	3,070	3,046	3,103	3,203	3,238	3,286	3,338
	(21.4)	(21.2)	(21.5)	(22.3)	(23.2)	(23.6)	(24.1)	(24.6)
20-24세	3,349	3,278	3,067	2,880	2,734	2,681	2,649	2,644
	(22.7)	(22.6)	(21.7)	(20.7)	(19.8)	(19.6)	(19.5)	(19.5)
25-29세	3,854	3,793	3,807	3,861	3,918	3,902	3,843	3,719
	(26.1)	(26.1)	(26.9)	(27.7)	(28.4)	(28.5)	(28.2)	(27.5)
30-34세	4,391	4,363	4,243	4,095	3,932	3,875	3,840	3,844
	(29.8)	(30.1)	(30.0)	(29.4)	(28.5)	(28.3)	(28.2)	(28.4)
전 체	14,759	14,504	14,162	13,937	13,787	13,696	13,618	13,5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2%포인트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간 동안 16.3%에서 13.0%로 3.3%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비구직 니트의 고연령화 현상은 분석기간을 1990년대로 확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기존연구와 본 연구를 결합하면, 비구직 니트 가운데 15~19세 비중은 1995년 22.9%에서 2010년 13.0%로 그리고 20~24세 비중은 41.6%에서 36.6%로 하락하였다.4) 반면 25~29세 비중은 동일기간 동안 23.8%에서 35.3%로 상승하였으며, 30~34세 비중도 11.8%에서 15.0%로 상승하였다.

3. 학력별

청년 비구직 니트의 학력 구성 및 그 변화를 보면 <표 6>과 <표 7>에서 보듯이,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 증가와 고졸자 비중 감소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비에 비해서도 크게 높으나 시간에 걸쳐 하락하는 반면, 대졸 이상자 비중은 인구 구성비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6>을 보면, 2010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자의 비중은 56.0%로서 가장 높으며, 15~34세 인구 가운데 고졸자의 비중인 40.1%보다도 크게 높다(표 7). 그러나 고졸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2003년 63.6%에서 2010년 56.0%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비구직 니트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10년 25.2%로서 2003년의 16.3%에 비해

4) 다른 연령집단의 비중들과 달리 20~24세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이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인다.

<표 6> 학력별 비구직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졸 이하	73	76	78	71	70	69	77	63
	(9.7)	(9.4)	(8.9)	(8.1)	(7.9)	(7.5)	(7.9)	(6.3)
고졸	478	481	508	491	473	466	526	557
	(63.6)	(59.6)	(58.2)	(55.7)	(53.1)	(50.8)	(54.0)	(56.0)
전문대졸	78	102	118	122	118	147	144	125
	(10.4)	(12.6)	(13.6)	(13.8)	(13.2)	(16.0)	(14.8)	(12.6)
대졸 이상	122	148	169	197	230	236	227	251
	(16.3)	(18.3)	(19.3)	(22.4)	(25.8)	(25.7)	(23.3)	(25.2)
전 체	751	806	873	881	891	918	973	9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15-34세의 학력별 인구 구성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졸 이하	2,676	2,618	2,533	2,636	2,705	2,760	2,801	2,775
	(18.1)	(18.1)	(17.9)	(18.9)	(19.6)	(20.1)	(20.6)	(20.5)
고졸	7,436	7,025	6,684	6,282	5,985	5,725	5,526	5,431
	(50.4)	(48.4)	(47.2)	(45.1)	(43.4)	(41.8)	(40.6)	(40.1)
전문대졸	1,902	2,058	2,124	2,104	2,183	2,254	2,281	2,268
	(12.9)	(14.2)	(15.0)	(15.1)	(15.8)	(16.5)	(16.7)	(16.7)
대졸 이상	2,744	2,802	2,822	2,916	2,913	2,957	3,011	3,070
	(18.6)	(19.3)	(19.9)	(20.9)	(21.1)	(21.6)	(22.1)	(22.7)
전 체	14,759	14,504	14,162	13,937	13,787	13,696	13,618	13,5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9%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기간 15~34세 인구 가운데 대졸 이상자 비중 상승분 4.1%포인트를 크게 능가한다. 참고로 비구직 니트 가운데 대졸 이상자 비중은 1995년 11.4%(남재량, 2006)에서 단기적인 등락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25.2%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편 전문대졸자 비구직 니트 비중도 증가하였으나 인구 구성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며, 중졸 이하 비구직 니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IV.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15~34세라는 젊은 시기에 학교나 학원 또는 교육훈련기관들에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육아나 가사를 하는 것도 아니며, 일을 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를 살펴보자. 다행히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3년부터 개인들의 주된 활동상태를 세분하여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표 8>은 청년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쉬었음’으로 2010년의 경우 34.9%로서 348천 명이 여기에 속한다. 가장 활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할 청년 가운데 무려 35만 명 가량이 특별한 일 없이 놀고 있는 것은

<표 8>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취업준비	122	157	201	262	281	319	301	310
	(16.2)	(19.5)	(23.1)	(29.7)	(31.6)	(34.7)	(30.9)	(31.1)
진학준비	115	111	123	124	137	124	145	179
	(15.3)	(13.7)	(14.1)	(14.1)	(15.3)	(13.5)	(14.9)	(18.0)
심신장애	63	68	63	59	52	61	68	51
	(8.4)	(8.4)	(7.2)	(6.7)	(5.9)	(6.7)	(7.0)	(5.1)
군입대 대기	90	63	66	55	50	43	43	55
	(12.0)	(7.8)	(7.6)	(6.2)	(5.6)	(4.7)	(4.4)	(5.5)
결혼준비	11	8	14	11	8	12	7	8
	(1.5)	(1.0)	(1.6)	(1.3)	(0.9)	(1.3)	(0.7)	(0.8)
쉬었음	261	310	329	305	309	316	360	348
	(34.7)	(38.5)	(37.7)	(34.6)	(34.6)	(34.4)	(37.0)	(34.9)
기타	89	89	76	66	54	45	50	47
	(11.9)	(11.0)	(8.7)	(7.5)	(6.1)	(4.9)	(5.1)	(4.7)
전 체	752	806	873	881	891	919	973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표에 제시된 '기타'는 원래 조사표상의 응답항목인 '기타'에다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주된 활동상태들을 모두 포함한 것임.

저출산 문제에 더하여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구직 니트는 그 규모도 2003년 261천 명에서 2010년 348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비구직 니트의 규모 자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비구직 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뚜렷한 추세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쉬었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업준비’이다. 2010년에 이 비중은 31.1%로 높은데 2003년 16.2%에서 매우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기간 ‘취업준비’ 비구직 니트의 수도 122천 명에서 310천 명으로 188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일기간 비구직 니트 전체 규모 증가분 245천 명의 76.7%에 해당한다. 즉 활동상태로 볼 때 비구직 니트 증가의 주된 원인은 취업준비자의 증가이다. 물론 ‘쉬었다’고 응답한 비구직 니트도 87천 명 증가하여 ‘취업준비’ 다음으로 비구직 니트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진학준비’의 경우도 동일기간 동안 64천 명 증가하고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청년 가운데에서도 취약청년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청년 니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연구가 우리나라의 니트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분석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뒤를 이어 최근의 니트 현황과 추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청년을 하나로 뭉뚱그려 동질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을 다양한 집단으로 식별해내고 이들에 대해 엄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은 청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 중요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청년 니트의 급속한 증가세가 2000년대 중반들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니트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는 대부분 실업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비구직 니트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구직 니트는 특히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이며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이러한 지속적인 증가세가 급속하지는 않지만 계속되고 있었다.

월별로 보면 2011년 1월에 비구직 니트의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2월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거나 일을 하지도 않고 심지어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고 있는 15~34세 청년의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고 있다는 사실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비구직 니트를 노동력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발견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간략히 비구직 니트의 여성화, 고연령화, 그리고 고학력화로 정리될 수 있다. 비구직 니트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15~34세 비구직 니트 가운데 보다 높은 연령집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비구직 니트 가운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포함)에 다니지도 않고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일자리를 알아보지도 않는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이 무려 35만 명(35%)에 이르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31만 명(31%)에 이르렀으며 이에 해당하는 비구직 니트가 최근 7년 동안 비구직 니트 증가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KL**

<참고문헌>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Jaeryang Nam(2011), “NEE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부표 1> 니트 현황:15-29세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5-29세 인구	10,368 (100.0)	10,141 (100.0)	9,920 (100.0)	9,843 (100.0)	9,855 (100.0)	9,821 (100.0)	9,778 (100.0)	9,701 (100.0)
니트	994 (9.6)	1,042 (10.3)	1,080 (10.9)	1,073 (10.9)	1,024 (10.4)	1,027 (10.5)	1,100 (11.2)	1,120 (11.5)
구직 니트	336 (3.2)	348 (3.4)	332 (3.3)	317 (3.2)	275 (2.8)	262 (2.7)	285 (2.9)	274 (2.8)
비구직 니트	657 (6.3)	694 (6.8)	748 (7.5)	756 (7.7)	749 (7.6)	764 (7.8)	815 (8.3)	846 (8.7)
니트 아님	9,374 (90.4)	9,099 (89.7)	8,840 (89.1)	8,770 (89.1)	8,832 (89.6)	8,795 (89.5)	8,678 (88.8)	8,581 (88.5)